

## 신록의 단오 풍정(風情)

강 욱  
자유기고가

음력 5월 5일 단오(端午)는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로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부터 홀수를 양수로 쳐서 길(吉)하게 여겼다. 삼짇날, 단오, 칠석, 중구가 모두 양수가 겹치는 날이다.

단오는 일명 수릿날(戌衣日), 중오절(重午節),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수리는 고. 상. 신(高. 上. 神)을 뜻하는 옛말로 신의 날, 최고의 날이라는 뜻이며 천중절이란 바로 그러한 뜻이다. 단오의 ‘단(端)’자는 ‘처음’ 곧 첫번째를 뜻하고 ‘오(午)’자는 ‘오(五)’, 곧 다섯을 뜻하므로 ‘초닷새(初五日)’라는 뜻이 된다. 단오는 일년 중 가장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최대의 명절로 삼았다. 더운 여름을 맞기 전의 초하(初夏)의 계절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祈豐祭)이기도 했다.

단오의 유래는 중국 초나라 회왕(懷王) 때부터로 전해 온다. 굴원(屈原)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해 뚝라수에 투신 자살하였는데 그 날이 5월 5일 이었다. 그 뒤 해마다 굴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에 전해져서 단오가 되었다고 한다. 열양세기(洌陽歲時記)에는 이날 밥을 수뢰(水瀨: 물의 여울)에 던져 굴원에게 제사지내는 풍속이 있으므로 ‘수릿날’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草)라는 나물과 쑥을 뜯어 떡을 해서 먹었는데 떡의 둥그런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와 같아서 수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단오에 여자들은 창포(菖蒲)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갯가나 우물가에 피어난 창포를 뜯어다가 장독간에서 하루 밤을 재우

며 밤이슬을 맞힌다. 다음날 가마솥에 물을 길어다 잎사귀를 떼어낸 창포의 줄거리를 푹 끓였다. 창포를 끓인 물은 약간 거무스름한 빛을 띄우게 된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며 빠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포 이슬을 받아 화장하고 먹기도 하였으며, 부녀자들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창포가 무성한 못가나 물가에 가서 ‘물맞이 놀이’를 하는 풍속도 있었다. 이렇게 창포수는 우리의 ‘전통 로션’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창포의 은은한 향내는 이례를 넘겼다고 하니 대단한 화장수였음을 알 수 있다.

창포가 만발하는 단오 날에 남자들은 창포뿌리로 술을 담아 마시기도 하였으며 창포떡, 창포김치도 해 먹었다고 전한다. 또한 단오장(端午粧)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를 만들어 이날 하루 부녀자들은 머리에 꽂고 다녔다. 비녀에는 수(壽), 복(福)자를 새기기도 하고 연지로 붉게 칠하기도 한다. 붉은 색은 양색(陽色)으로 귀신을 쫓는 기능을 가진데서 생긴 풍속이다.

그밖에도 창포와 관련된 민속이야기는 많이 전해오고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창포즙을 장기간 복용하면 귀와 눈이 맑아지고 건망증이 사라지며 불로 장수한다고 했다. 창포 꽃을 따서 말린 것을 요 밑에 깔고 자면 모기, 빈대, 벼룩 따위의 물 것이 접근하지 못하고 병마나 액귀(厄鬼)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한다. 창포줄기로 엮은 방석도 그와 같은 벽사(辟邪:귀신을 물리치는 것)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창

포는 연못가와 도랑가에서 흔히 자라고 있었으나 현재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아쉬운 노릇이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민속축제 단오는 누구보다 처녀총각에게 가슴 설레는 날이었다. 조선시대 유교관습으로 인한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의 내외(內外)의 예(禮)가 이날만큼은 완화되었다. 완전히 자유스럽지는 않아도 얼굴을 흘끗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이날은 있었다.

아침이면 새 옷으로 갈아입은 여자들이 그네를 뛰기 위해 나들이를 나선다. 남자들이 힘 자랑을 겨루는 씨름장으로 나오는 길에 서로 오가면서 마주친다. 처녀 총각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속담을 이때 실행에 옮기고자 애썼다. 저녁이면 동네 마당에서 모닥불을 켜놓고 벌어지는 탈춤의 향연은 축제를 더욱 흥분으로 몰아넣었다.

이때 즐기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그네뛰기와 씨름이었다. 이것은 무더위를 땀으로 식히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놀이이기도 하다. 그네뛰기는 단오 날 여자들의 놀이로서 정월놀이인 널뛰기와 함께 여성놀이의 쌍벽을 이룬다.

그네에 대해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 자료에 처음 나타난다. ‘고려사’ 열전의 ‘최충헌전’에 “단오 날에 충헌이 그네를 설치하고 4품 이상의 문무 관원들을 초청하여 3일간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 문헌상의 첫 기록이다.

여자들이 단오 날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뛰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네 뛰는 여자의 모습을

반선녀(半仙女)라고도 했다. 이 무렵에는 신록이 우거지고 날씨가 또한 청명하므로 푸른 창공을 박차고 하늘 높이 솟구치는 여인의 모습은 물찬 제비 같았다.

그네는 흔히 여자들의 놀이로 알려져 있지만 남자들도 종종 뛰었다. 그네놀이에는 한 사람이 뛰는 외그네 뛰기와 한 그네에 두 사람이 함께 마주 향하여 뛰는 쌍그네, 혹은 맞그네 뛰기가 있다. 그네는 온몸으로 하늘을 날며 환상적인 곡선의 움직임으로 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남녀가 함께 뛰는 쌍그네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여 유사 성행위를 상징하게 된다.

단오 날 그네뛰기야말로 옛날 부녀자들이 일년 내내 억눌렀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 볼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다. 그래서 ‘춘향전’을 비롯한 우리의 고대소설이나 민담에는 그네를 뛰다가 사랑을 맺게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씨름은 오랜 상고시대부터 전해 내려 왔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할 만큼 대단히 오래된 민속놀이이다. 중국에서도 씨름을 고려기(高麗技)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한민족의 독특한 운동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단오 날이면 남자들은 술밭이나 백사장에 나가 씨름을 하면서 무더위를 식혔다.

단오의 집단적인 민속행사로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지내는 단오제(端午祭)와 단오 굿이 있다. 지금까지 전승되면서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강릉 단오 굿’은 대관령 국사성황을 강릉 시내 여성황당에 모시는 행사다. 또한 문호장(文戶長)이라는 신령한 인물에게 제를 올리는 경상남도 영산의 ‘문호장 굿’이 전해온다. 이처럼 단오의 여러 행사는 벽사 및 더위를 막는 신앙적인 관습이 많았고, 더운 여름에 신체를 단련하는 민속놀이로 마을의 번영과 공동체의식을 이루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